

매년 연말 학기말 시험이 다가오면 참으로 난처한 일을 겪게 된다. 바늘구멍보다 더 작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어선 학생들이 찾아와서 회사에서 학기말 시험 기간 중에 신입사원 연수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신입사원들이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게 만드는 회사가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세상을 사는 데는 알팍한 지혜보다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내 입장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된다.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취업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절대 수업 시간은 지켜야 한다는 평소의 원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으니 말이다. 사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입사 시험을 치르고, 11월만 되면 졸업 예정자들에게 학업을 포기하고 출근을 하라고 강요하던 일이 자주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언젠가부터 그런 관행이 사라지는 듯하더니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몇몇 작은 기업에서부터 옛날의 그 나쁜 관행이 되살아나는 모양이다. 세계를 향해 뛰고 있다는 우리 기업이 정작 신입사원들의 대학 교육은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대학 졸업자를 뽑아주는 덕분에 우리 대학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섬섬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다.

고교 교육 흐드는 대학의 논리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대학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똑같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바로 '수시 입학'이라는 제도다.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분이지만,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의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고등학교 교실을 뒤흔들어놓는 것이 바로 수시 입학이다.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들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의 고등학교 입장에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수시 합격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없다. 사실은 고등학교가 그런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없다. 고등학교 과정이 3년으로 못박혀 있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교육제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대학의 횡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대학마저 자신들의 교육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들켜버린 교사들이 어떻게 낯을 들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 교사들의 약한 모습을 본 학생들이 대학의 교수는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과연 수시 입학제도가 합격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정말 공정한 제도인가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수시 입학제도로 대학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도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한다. ☹

수시 입학제도 혜택인가, 횡포인가?

극소수 합격자 때문에 교육이 흔들려서야

글_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대학마저 자신들의 교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들켜버린 교사들이 어떻게 낯을 들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박지영